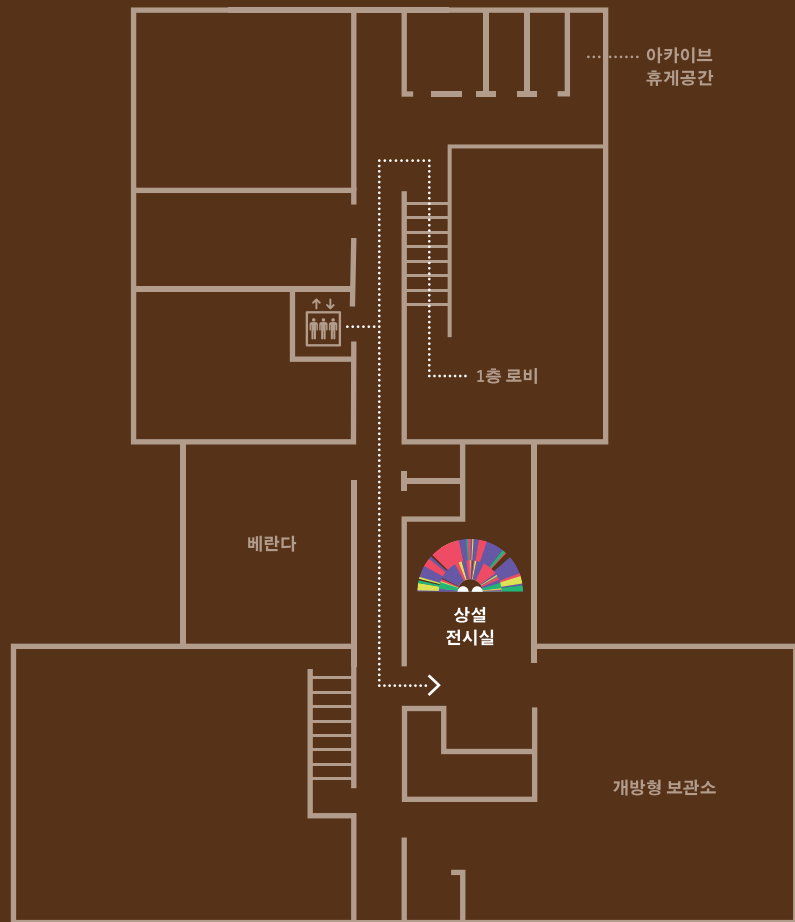


공간 안내

FLOOR MAP (2F)
국립극장 무대예술지원센터 2층



3부 공연예술, 숲을 이루다 PERFORMING ARTS: FORM A FOREST



종합민족문화센터 국립극장 환경 조성도
Environmental Development Plan for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Comprehensive National Culture Center
1967년



국립극장 특별기획공연 <우루왕> 공연 소품
Stage Props for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s Special Production: King Uru
2001년

공연예술이 점차 다양해지고 역량을 쌓자 대형 극장 등 공연장과 전문단체가 필요해졌습니다. 정부는 1973년 국립극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확장했고 1978년에는 세종문화회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장르를 뛰어넘는 예술 간의 교류,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행, 전국에 늘어나는 공공 공연장, TV의 보급과 국제 행사 개최 등으로 공연예술은 점차 국내외 대중과 가까워졌습니다. 그 결과 한국 공연예술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동시에 VR, AR 같은 첨단기술을 도입하며 끊임없이 문화를 풍부하게 가꿔 나가고 있습니다.

As the performing arts have become more diverse and developed greater capabilities, the number of large theaters and other performance venues and professional organizations have increased in Korea. Today, Korean performing arts are gaining global recognition and are being reborn as a new cultural phenomenon, fueled by cross-genre artistic exchanges,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the increase of public performance spaces, the proliferation of television, and the hosting of international events.

4부

공연예술, 열매를 맺다 PERFORMING ARTS: BEAR FRUIT



극단 실험극장 <에쿠우스> 말 가면
Horse Mask from Shilhum Theatre's Production: Equus
2001년 | 이한승 기증



허규가 사용한 소리북과 채
Buk (Korean Traditional Drum) and Drumstick Used by Heo Gyu
현대 | 박현령 기증



토슈즈
Pointe Shoes
현대 | 유니버설발레단 기증

공연예술은 형태가 없는 예술로서 공연이 끝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공연예술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일에 애정을 담아 참여하고, 자신이 거둔 성과를 기꺼이 사람들과 나누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이 분들을 '기증자'라고 부릅니다. 기증자가 있기에 공연예술은 더욱 풍요로운 문화의 씨앗으로 거듭납니다. 기증자의 따뜻한 마음이 전시장을 나가는 여러분에게 오랜 온기로 남기를 바랍니다.

Remembering and documenting intangible performing arts is a difficult task. The people who participate in this challenging endeavor happily share the fruits of their work with others. The Museum calls these people "donors." We hope that the generosity of these museum donors will resonate with you and lead to the birth of new performing arts.

5부

무대 뒤 사람들 THE PEOPLE BEHIND THE SCENES



유선 마이크
Wired Microphones
1970년대



풋라이트 (각광)
Footlight
1970년대



믹싱 콘솔
Mixing Console (HYFAX PMA-802A)
1980년대 중반

빛나는 무대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명, 음향, 영상 등 무대 미술과 기술로 공연을 만드는 사람들을 무대 스태프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장충동 국립극장 개관 즈음 실제로 사용되었던 음향 기기와 조명 기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공연을 완성했던 무대 스태프의 손길이 남아 있는 장비들을 통해, 당시 무대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Many people work behind the stage on which the performers shine. Those who help to create each performance using stage art and technology, such as lighting, sound, and images, are called "stage staff." This room displays some sound and lighting equipment that was actually used around the time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opened in Jangchung-dong, Seoul. Looking at this equipment, you can easily imagine what the stage was like back in the early days.



공연예술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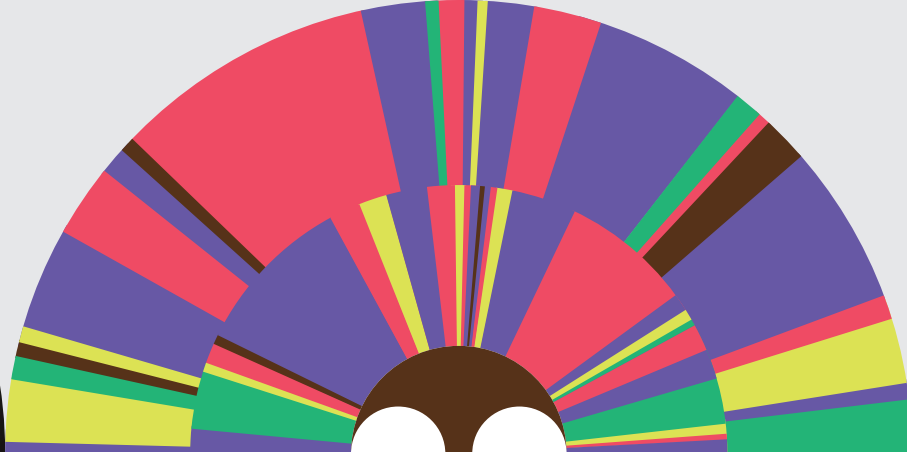
공연예술 시대와 함께 숨쉬다



공연예술박물관 MUSEUM OF PERFORMING ARTS, NTOK

공연예술박물관은 한국 최초로 설립된 공연예술 전문 박물관입니다. 공연예술박물관은 무대에 올리는 순간 사라지는 시간적·무형적 특성이 있는 공연예술의 역사를 기록하고 자료를 수집·보존·전시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23일 처음으로 문을 열었으며 2024년 파주에 있는 국립극장 무대예술지원센터로 이전, 2026년 새롭게 재개관하였습니다.

The Museum of Performing Arts is Korea's first museum dedicated to the performing arts. Live performances are inherently ephemeral, vanishing the moment they come to life on stage. To preserve this intangible heritage, the museum opened on December 23, 2009, to collect, conserve, and exhibit the legacy of the theatrical world. Following its relocation to the Stage Arts Support Center, NTOK in 2024, the museum reopened in 2026 with a renewed vision, offering a deeper look into the world of performing arts.



공연예술, 시대와 함께 숨쉬다 PERFORMING ARTS IN KOREA, ALIVE IN THE TIME

공연예술은 이 세상에 사람이 나타난 순간부터 함께해 왔습니다. 음악, 춤, 연극 등이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채롭게 우리의 삶을 비추었습니다. 한국에서 공연예술은 20세기 무렵 '근대화'를 맞닥뜨리며 큰 변화를 겪습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져 들어온 서양 문화가 사회를 휘젓자, 혼란 속에서 전통을 지켜내려는 움직임과 최신 문물을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이 전시에서는 20세기 이후를 중심으로 우리의 공연예술이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사람들은 공연예술을 어떻게 창작하고 기억했는지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지금, 여기 너머의 공연예술을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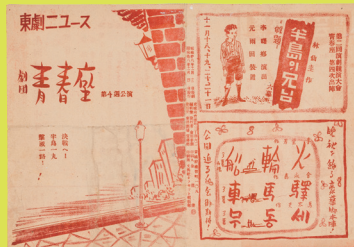
Performing arts have been with us since the dawn of humanity. Music, dance, theater, and others have colorfully illuminated our lives across time and space. During the twentieth century, performing arts in Korea underwent significant changes on the path to "modernization." As the sudden influx of Western culture shook society, a movement to preserve traditions amidst the chaos and another movement to embrace the latest civilizations arose simultaneously in the country. This exhibition looks at the path that our performing arts have taken since the twentieth century and examines how people have created—and remember—performing arts, providing the public with an opportunity to imagine performing arts beyond the here and now.



1부 공연예술, 뿌리를 찾다 PERFORMING ARTS: THE SEARCH FOR ROOTS



「하믈레트」
Hamlet
1923년



청춘좌 공연 전단
Flyer of Cheongchun Theater
1943년



에디슨 스탠더드 축음기 B형
Edison Standard Phonograph Model B
1905년

우리나라 공연예술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고대에는 하늘을 숭배하는 제사를 지내며 공동체의 결속을 다졌습니다.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궁중, 민간 할 것 없이 공연예술이 체계화되면서 점차 전문적인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1900년대 초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공연예술은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전통 방식의 공연이 주로 야외에서 펼쳐진 데 비해, 실내 극장이 등장하면서 공연 양식에도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며 신극, 신민요, 신무용 같은 근대적 공연예술이 탄생하였고 전통과 서양 문화가 공존하는 변화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In ancient times, what we think of as the performing arts were in reality religious and social activities, which only gradually became specialized throughout the Middle Ages and the early modern era. With the introduction of Western civilization and culture in the early 1900s, Korea's performing arts underwent a profound transformation. Modern performing arts such as Singeuk(New Theater), Sinminyo(New Folk Songs), and Sinmuyong(New Dances) emerged, ushering in an era of coexistence between traditional Korean and Western cultures.



2부 공연예술, 꽃 피우다 PERFORMING ARTS: FLOURISH



극단 신헌 제1회 정기공연·국립극장 개관 기념 공연 〈원술랑〉 프로그램북
Program Book for the 1st Regular Performance of the theater company Shinhyeop & inaugural performance of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Wonsullang
1950년 | 김진환 소장



강선영 무용연구소 문하생발표회 프로그램북
Program Book for the Student Recital of the Kang Sun-young Dance Institute
1963년

일제강점기와 같은 격변기를 겪은 공연예술인들은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바랐습니다. 이를 위해 1950년 아시아 최초로 국립극장이 개관하며 전속단체로 국립극단(당시 신헌)을 두었습니다. 첫 공연인 연극 〈원술랑〉으로 성공을 거두었으나, 곧 6·25 전쟁이 터지며 공연예술계는 다시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술을 지키려는 노력 끝에 1957년에는 국립극장이 명동에 새롭게 문을 열었고 국립예술단체도 늘어났습니다. 어려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최신 경향을 익히고 전통예술을 현대적으로 가꾸려는 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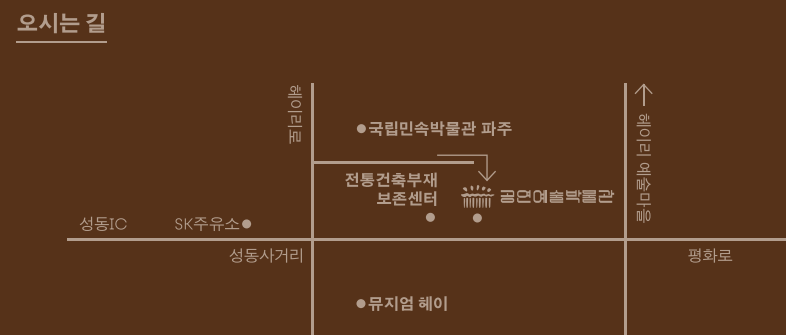
Korean performing artists, having experienced turbulent times such as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longed for an environment in which they could dedicate themselves to their creative activities. To this end,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the first of its kind in Asia, opened in 1950, but the Korean War(1950–1953) broke out shortly thereafter, plunging the performing arts industry into another crisis. Nevertheless, along with consistent efforts to preserve the arts,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reopened in Myeongdong, Seoul in 1957, and the number of national arts organizations also increased.



관람 안내 VISITOR INFORMATION

전시 장소	관람 시간
공연예술박물관	화요일–일요일 10:00–18:00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입장 마감 17:30
헤이리로 16 (법흥리 1631)	
국립극장 무대예술지원센터	휴관일
상설전시실(2층)	매주 월요일, 1월 1일, 명절 당일

관람료	
무료	
관람 문의	
031.870.9110	



광역버스	마을버스, 일반버스
2200번 / 2200-1번	037번 운정중앙역(GTX) 승차
홍대입구역(1번 출구) 승차	033번 금촌역(경의중앙) 승차
맛고을 · 국립민속박물관 정거장 하차	033-1번 탄현중학교 승차
	900번 대화역(3호선) 승차
	맛고을 · 국립민속박물관 정거장 하차